



2026학년도 중등 국어 임용고시 희소치처스 설명회 포함

국어 송헌 김준팀

# 적중자료

중등 국어 임용 합격비법을 공개합니다!

 KG 에듀원 교원임용 희소/쌤플러스

## 수강생들이 직접 쓴 수강후기

송헌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교론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pi\pi$  문학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문제 풀이이랑 모의고사에서 여러 방법으로 단련하여 그나마 이 정도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1년을 책임져주셨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okk\*\*\*

임용 1차 시험은 제가 준비가 부족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못 한 것 치고는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쓰다 보니 모르던 작품도 기억나지 않던 작품도 짚어주셨던 작품과 부분들도 다 쓰고 나왔습니다!!

gjw\*\*\*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분석력이 가장 중요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문제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교사의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문학 작품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 놀랐네요 ㅎㅎ

kim\*\*\*

처음에는 모범 답안에 이의 제기도 많이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제 생각보다는 송헌 선생님의 답안이 도출된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sb6\*\*\*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험을 잘 치르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hjc\*\*\*

끊임없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위로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tms\*\*\*

선생님 덕분에 문학 기본 이론 준비를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관도 본받을 만하고, 아낌없이 주시는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 덕에 그림 그리듯이 작품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eun\*\*\*

단순히 작품을 읽고 줄거리, 기법, 전문가들의 해설을 주입하는 수업이 아니라 수강생들과 함께 나름의 해석을 해 보는 수업이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작품과 해설을 외우기보다는 작품에 제시된 내용들을 읽으며 이해하고 제 나름의 해석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kng\*\*\*

한 문법 현상에 여러 관점을 설명해 주시니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이론들을 간단한 문제들과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로 풀어가며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jiw\*\*\*

강의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수강생 하나하나를 위하시고 중간중간 고민하시는 진심도 느껴져서 진솔하게 진도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개념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초수 준비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kdv\*\*\*

2026학년도 임용 전공 국어문제	적중 근거 자료
<p>전공A-1번 [국어교육론][독서 영역]</p>	<p>■ 1~2월 기본 이론반 강의 중 -[송헌]국어교육론(기본이론) 교재 376쪽 ▶오독과 자율적 수정</p>
<p>전공A-2번 [문학][고전시가 영역][처용가]</p>	<p>■ 5~6월 심화 이론반2 강의 중 -[송헌]작품을 보는 눈(고전시가) 교재 109쪽 -회사가시로다, 어여녀거저의 해석</p>
<p>전공A-3번 [문법]</p> <p>3.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주어가 화자의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를 반영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하나의 문장이 서술하는 사건에서 화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대상이 주어로 선택된다. 이 견해를 적용하면 한국어의 다양한 논항 교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p> <p>(1) 철수가 망치로 그릇을 깬다. (2) 망치가 그릇을 깬다. (3) 그릇이 깨졌다.</p> <p>(1)에서는 ‘망치로’가 부사어인데 ‘망치’가 화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받으면 (2)처럼 ‘망치가’가 ( ㉠ )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2)에서는 ‘그릇을’이 목적어였지만 ‘그릇’이 화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받으면 (3)처럼 ‘그릇이’가 ( ㉡ )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1)~(3)에 논항으로 참여한 ‘그릇’의 경우, 문장에 따라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 ㉢ )은/는 모두 동일하다.</p> </div>	<p>13. 다음을 읽고, 동사의 의미역에 대하여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동사를 비롯한 서술어가 갖는 고유한 의미적·통사적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논항(argument)이 있는데, 이 논항의 역할을 의미역이라 한다.</p> <p>(1) ㄱ. 철수는 배가 고프다.       ㄴ. 철수가 책을 읽는다.</p> <p>(1ㄱ)과 (1ㄴ)에서 ‘철수’는 동일한 문장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의 의미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의미역을 달리 파악해야 한다.</p> <p>(2) ㄱ. 철수가 밥을 먹는다.       ㄴ. 달이 매우 밝다.</p> <p>한편 (1ㄴ)과 (2ㄱ), (2ㄴ)에서는 같거나 서로 다른 문장 성분의 ㉡의 의미역이 동일한 경우도 확인된다.</p> <p>(3) ㄱ. 달이 매우 밝다.       ㄴ. 별이 하늘에서 반짝인다.       ㄷ. 저것은 철수에게 준 책이다.</p> <p>(4)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p> <p>(3)에서도 특정한 문장성분이 ㉢공통적인 의미역을 가지며, (4)의 주어는 (3ㄱ~ㄷ)의 주어와 의미역에서는 역시 차이를 보인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작성 방법&gt;</p> <p>○ ㉠, ㉡, ㉢에 대하여 설명할 것. ○ (4)에서 확인되는 의미역에 대하여 밝힐 것.</p> </div>

2026학년도 임용 전공 국어문제	적중 근거 자료								
<p>전공A-4번 [문법]</p> <p>4.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lt;자료 1&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눈</td> <td>‘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태풍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td> </tr>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뉘이다</td> <td>‘물고기가 뉘시로 잡히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피에 속아 이익을 뺏기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경품에 뉘였다.</td> </tr> </table> <p>&lt;자료 2&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두뇌</td> <td>‘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두뇌를 잘 활용하는 인재’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우리 회사의 두뇌이다.</td> </tr>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보다</td> <td>‘눈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하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아이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다.</td> </tr> </table> <p>&lt;자료 1&gt;에서 설명하는 의미 확장에는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과의 유사성을 통해 이해하는 인지적 기제인 ( ㉠ )이/가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lt;자료 2&gt;에서 설명하는 의미 확정에는 인접성을 토대로 한 인지적 기제인 ( ㉡ )이/가 개입하고 있다.</p> </div>	눈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태풍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뉘이다	‘물고기가 뉘시로 잡히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피에 속아 이익을 뺏기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경품에 뉘였다.	두뇌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두뇌를 잘 활용하는 인재’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우리 회사의 두뇌이다.	보다	‘눈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하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아이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다.	<p>■ 7, 8월 문제풀이 과정 - 의미론</p> <p>[42-44] 환유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 &lt;보기&gt;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lt;보기&gt; —</p> <p>(1) ㄱ. 그는 우리 당의 입(→대변인)     ㄴ. 선글라스(→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신이 났다.</p> <p>(2) ㄱ. 장미(→장미 가지)에 찢렸다.     ㄴ. 도시락(→도시락의 내용물)을 먹었다.</p> </div> <p>42. 위 &lt;보기&gt;의 (1)과 (2)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p> <p>43. &lt;보기&gt; (1ㄱ)과 (1ㄴ)의 표현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p> <p>44. &lt;보기&gt;의 (2ㄱ)과 (2ㄴ)의 표현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p> <p>[46-49] 은유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 &lt;보기&gt;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lt;보기&gt; —</p> <p>(1) ㄱ. 내일은 시간이 빈다.     ㄴ. 일어나 보니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었다.</p> <p>(2) ㄱ. 사랑이 {뜨겁다/식다/넘치다/깨지다}.     ㄴ. 사랑을 {쏟다/붓다/나누다}.</p> <p>(3) ㄱ. 봉급이 {올라가다/내려가다}.     ㄴ. 저축률이 {높다/낮다}.</p> </div> <p>46. 위 &lt;보기&gt; (1), (2), (3)의 은유의 유형에 대해서 쓰시오.</p> <p>47. 위 &lt;보기&gt; (1)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p> <p>48. 위 &lt;보기&gt; (2)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p> <p>49. 위 &lt;보기&gt; (3)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p>
눈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태풍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뉘이다	‘물고기가 뉘시로 잡히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피에 속아 이익을 뺏기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경품에 뉘였다.								
두뇌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두뇌를 잘 활용하는 인재’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우리 회사의 두뇌이다.								
보다	‘눈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하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아이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다.								

2026학년도 임용 전공 국어문제	적중 근거 자료
<p>전공A-5번 [국어교육론][작문 영역]</p>	<p>■ 1~2월 기본 이론반 강의 중 - [송헌]국어교육론(기본이론) 교재 290~292쪽, 313쪽 ■ 2026학년도 모의고사 5회 B-4번 ▶ 독자의 개념(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p>
<p>전공A-9번 [문법]</p> <p>9. 다음을 읽고, 선어말 어미 ‘-더-’와 ‘-더니-’가 포함된 결합형에 대해 &lt;작성 방법&gt;에 따라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종결형에서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더-’는 화자가 과거의 어느 시절에 지각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을 서술할 때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p> <p>(1) ㄱ. *내가 운동을 했더라.     ㄴ. 민수가 운동을 했더라.     ㄷ. 내가 다른 사람 가방을 가지고 있더라.</p> <p>이런 견해에 따르면 (1ㄱ)과 (1ㄴ)을 비교할 때, (1ㄱ)에서 ( ㉠ ) 주어의 사용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화자가 이미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건을 서술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의 서술에 적합한 ‘-더-’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ㄷ)은 ( ㉡ ) 주어의 사용이 어색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화자가 전에는 ( ㉢ ) 자신의 행동을 ‘새로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p> <p>한편, 다음의 (2), (3)은 ‘-더-’가 포함된 연결 어미 ‘-더니’와 ‘-더니’ 앞에 ‘-았-’이 결합한 ‘-았더니’가 사용된 예문들이다. (2)와 (3)의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 ‘-더니’와 ‘-았더니’는 ㉣문장의 주어와 관련된 제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p> <p>(2) ㄱ. *내가 집에 가더니, 대청소를 했다.     ㄴ. 민수가 집에 가더니, 대청소를 했다.</p> <p>(3) ㄱ. 내가 운동을 했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ㄴ. 민수가 운동을 했더니, 건강이 좋아졌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작성 방법&gt;</p> <p>○ ㉠, ㉡에 들어갈 말을 ㉠은 1어절로, ㉡은 2어절로 순서대로 쓸 것. ○ (2)와 (3)에서 각각 나타나는 ㉣의 양상을 (1)에 나타나는 종결형에서의 ‘-더-’와 대비하여 서술할 것.</p> </div>	<p>■ 2회 모의고사 - 8번</p> <p>8. 다음을 읽고, ‘-더-’의 특징과 제약에 대하여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선어말어미 ‘-더-’도 다른 시제 표시 선어말어미처럼 국어의 시제 표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소다.</p> <p>(1) ㄱ. 요즈음 서울은 참 춥다.     ㄴ. 요즈음 서울은 참 춥더라.</p> <p>(2) ㄱ. 누나가 두 번 왔었다.     ㄴ. 누나가 두 번 왔었더라.</p> <p>㉠-‘-’는 당시의 시제를 살리면서 다른 곳이나 다른 때에 경험한 상황을 당시의 시제를 살리면서 옮겨와 그것을 회상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1ㄱ)과 (1ㄴ), (2ㄱ)과 (2ㄴ)은 ㉡경험 장소와 발화 장소에서 차이를 보인다.</p> <p>(3) ㄱ. 아침에 친구들이 찾아왔더라.     ㄴ. 이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꼈겠지만 네 노래 솜씨는 보통이 아니더라.</p> <p>(3ㄱ,ㄴ)의 ‘-더-’도 (1ㄱ), (2ㄱ)의 ‘-더-’와 문법적 기능이 같지만 다른 점도 갖는다.</p> <p>(4) ㄱ. *어젯밤에는 바람이 심해서 영희가 몹시 춥더라.     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더라.</p> <p>‘-더-’는 ㉢화자가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말하며 남에게 전달 보고하는 투의 말에 쓰인다. 따라서 (4, ㄱ, ㄴ)에서 처럼 문법적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작성 방법&gt;</p> <p>○ (1ㄴ), (2ㄴ), (3ㄴ)을 예로 하여 ㉡에 대하여 설명하고, ㉠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할 것. ○ ㉢을 고려하여 (4ㄱ,ㄴ)의 제약에 대하여 제시할 것.</p> </div>

2026학년도 임용 전공 국어문제	적중 근거 자료
전공A-7번 [국어교육론][독서·작문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학년도 모의고사 7회 A-1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회상법</li> </ul> </li> </ul>
전공A-11번 [문학][현대소설 영역][패강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월 심화 이론반1 교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헌]작품을 보는 눈(현대소설) 교재 40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자들의 머릿수건과 ‘박’의 공통점</li> <li>▶‘서리’에 해당하는 것, ‘얼음’을 통해 작가가 나타내 고자 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감을 ‘현’, ‘박’이 하는 일과 관련지어 서술</li> </ul> </li> </ul> </li> </ul>
전공B-1번 [국어교육론][작문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 기본 이론반 강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헌]국어교육론(기본이론) 238쪽, 244쪽, 285쪽, 288쪽, 299쪽, 301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적 상황, 작문 상황, 작문 맥락, 수사적 맥락</li> </ul> </li> </ul> </li> <li>■ 3~4월 심화 이론반1 강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헌]교육과정&amp;교과서를 보는 눈(작문편) 42쪽, 217쪽, 24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적 상황, 작문 상황, 작문 맥락, 수사적 맥락</li> </ul> </li> </ul> </li> <li>■ 2026학년도 모의고사 9회 B-1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문 과제의 수사적 맥락</li> </ul> </li> </ul>
전공B-2번 [문학][고전 시가 영역] 보리타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6월 심화 이론반2 교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헌]작품을 보는 눈(고전시가) 교재 33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리타작(타맥행) 중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 화자의 반성</li> </ul> </li> </ul> </li> </ul>
전공B-3번 [국어교육론][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 기본 이론반 강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헌]국어교육론(기본이론) 377쪽, 469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도 평정</li> </ul> </li> </ul> </li> <li>■ 5~6월 심화 이론반2 강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헌]교육과정&amp;교과서를 보는 눈(독서편) 9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약하기 전략</li> </ul> </li> </ul> </li> <li>■ 2026학년도 모의고사 10회 A-6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약하기 전략</li> </ul> </li> </ul>

2026학년도 임용 전공 국어문제	적중 근거 자료
<p>전공B-5번 [문법]</p> <p>5. 다음을 읽고, 중세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해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data-bbox="105 344 743 42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중세 국어 첨가 현상 중 ‘j’ 첨가는 (1)과 같이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p> </div> <p>(1) ㄱ. 뉘--+어→뉘여, ㄷ외--+아→ㄷ외야                  ㄴ. 내--+오려→내요려                  ㄷ. 퍼디--+어→퍼디여, 지--+어→지여</p> <p>중세 국어의 ‘개, ㅐ, ㅑ, ㅓ’가 하향 이중 모음이었다고 볼 때, (1ㄱ)과 (1ㄴ)은 ‘j’ 첨가가 일어나는 음운론적 환경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ㄷ)의 환경에서는 ‘j’ 첨가가 아닌 반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p> <p>(2) 바오리어늘</p> <p>한편, (2)는 (1ㄴ)과 동일하게 ‘j’ 첨가 적용 환경을 갖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2)는 ‘j’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2)는 ‘바올+이--+거늘’로 분석되어,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 대치 현상이 적용됐기 때문이다.</p> <div data-bbox="105 1256 743 152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작성 방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ㄱ)과 (1ㄴ)에서 ‘j’ 첨가가 일어나는 음운론적 환경을 각각 서술할 것.</li> <li>○ (2)의 어미 초성에 나타난 대치 현상의 명칭을 쓰고, ㉠의 이유에 대해 음운론적 환경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li> </ul> </div>	<p>■ 7, 8월 문제풀이, 중세국어문법(1)-19-1(직강 제공)</p> <p>19-1. 다음을 읽고, 중세 국어의 ‘ㅇ’의 용법에 대하여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하시오.</p> <div data-bbox="794 394 1497 123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보기&gt;</p> <p>현대 국어에서 ‘ㅇ’은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이는데, 초성에서는 음가가 없는 글자로 쓰이고 종성에서는 연구개 비음 /ŋ/의 음가를 가지는 글자로 쓰였다</p> <p>(1) ㄱ. 놀애, 몰애, 놀애, 달아                  ㄴ. 궂애, 궂어, 빛이고</p> <p>(1ㄱ,ㄴ)에서 쓰인 ‘ㅇ’은 현대 국어 초성에서 나타나는 ‘ㅇ’과 그 성격이 다른 글자이다. 만일 현대 국어와 동일했다면 ㉠그 표기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p> <p>(2) ㄱ. 못허리오, 뷔오                  ㄴ. *못하리오</p> <p>(2)에서 ‘ㅇ’도 (1)의 ‘ㅇ’과 그 양상이 동일하다. 따라서 (2ㄱ)은 정상적인 표기인 반면에 (2ㄴ)은 ㉠허용 불가능한 예에 해당한다. 만일 (2ㄴ)이 가능한 표기라면 여기에는 특정한 음운 현상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음운 현상은 ‘ㅇ’의 음가상의 특성으로 인해 절대 발생할 수 없다.</p> </div> <div data-bbox="794 1317 1497 152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작성 방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ㄱ,ㄴ)에 대하여 ㉠에 해당하는 표기를 제시할 것.</li> <li>○ ㉠의 이유에 대하여 밝힐 것.</li> <li>○ ㉠에서 언급한 음운 현상에 대하여 쓰고, 그런 음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것.</li> </ul> </div>

2026학년도 임용 전공 국어문제	적중 근거 자료
<p>전공B-6번 [문법]</p> <p>6. 다음을 읽고, 음장에 대해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data-bbox="103 331 758 41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lt;표준 발음법&gt;은 음장이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음소임을 명시하고 있다.</p> </div> <p><b>【제6항】</b> 모음이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lt;표준 발음법&gt; 제6항에 따르면 장음은 원칙상 어두에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눈[눈:]’은 장음이지만 ‘첫눈[천눈]’ ‘눈’은 단음이다. 그러나 어두 장음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음운론적 조건과 문법론적 조건 등에 의해 바뀔 수 있다.</p> <p>(1) ㄱ. 손목에 붓대를 감고[감:꼬] 있었다.                  ㄴ. 지수가 시계태엽을 감아[가마] 두었다.                  ㄷ. 발이 줄에 감겨[감겨] 넘어질 뻔했다.</p> <p>(1)은 &lt;표준 발음법&gt;에 제시되어 있는 ‘감다’와 ‘감기다’의 발음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본래 ‘감다’는 (1ㄱ)처럼 장음으로 실현되지만 ㉔(1ㄴ)과 같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어두 위치에서 단음이 되기도 한다. 또한 ㉔(1ㄱ)의 ‘감다’와 달리 (1ㄷ)의 ‘감기다’는 어두가 단음인데, 두 단어는 문법적 차이가 있다.</p> <p>한편, 어두 장음은 단음절 여간이 보상적 장음화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p> <p>(2) ㄱ. 이 포도는 너무 셔[셔:].                  ㄴ. 오늘은 네가 좀 가[가].</p> <p>(2)는 단음절 여간 ‘사-’와 ‘가-’가 어미 ‘-아/어’와 결합한 예이다. (2ㄱ)은 단음절 여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절 수가 줄어듦에 따라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단음절 여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한 음절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무조건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ㄴ)은 단음절 여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절 수가 줄었지만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p> <div data-bbox="103 1848 758 212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작성 방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을 참고하여 ㉔의 ‘음운론적 환경’과 ㉔의 ‘문법적 차이’에 대해 서술할 것.</li> <li>○ (2)의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는 양상과 관련하여, (2ㄱ)과 (2ㄴ)의 음운 현상의 명칭과 음운론적 환경을 연결하여 각각 서술할 것.</li> </ul> </div>	<p>■ 2회 모의고사 - 7번</p> <p>7. 다음을 읽고, 운소의 실현 양상에 대하여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data-bbox="794 313 1500 43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소리가 길고 짧다는 것은 자음이 아닌 모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단은 음절 단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긴소리로 발음한다.</p> </div> <p>(1) ㄱ. 두--+-다[두다]                  ㄴ. 두--+-어[뒤:]</p> <p>용언 (1ㄱ)의 ‘두다’는 [두다]로 발음하지만 ㉔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1ㄴ)에서는 긴소리로 발음한다. 그러나 ‘오다’, ㉔‘지다’, ‘찌다’, ‘치다’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면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p> <p>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p> <p>(2) ㄱ. 밤나무[밤:나무]                  ㄴ. 쌍동밤</p> <p>(3) ㄱ. 반신반의[반:신바:늬]                  ㄴ. 선남선녀[선:남선:녀]</p> <p>(2ㄱ)의 ‘밤’은 길게 발음하지만, (2)의 ‘밤’은 짧게 발음한다. 한편 ㉔(3ㄱ,ㄴ)의 모음은 긴소리로 발음한다.</p> <p>(4) ㄱ. 신다[신:따]                  ㄴ. 신으니[시느니]</p> <p>(4ㄱ)과 달리 (4ㄴ)에서는 짧게 발음한다. 그러나 ‘꼴다, 벌다, 었다, 웃다’와 같은 용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더라도 길게 발음한다.</p> <p>(5) ㄱ. 감다[감:따]                  ㄴ. 감기다[감기다]</p> <p>(6) ㄱ. 굶다[굶:따]                  ㄴ. 굶기다[굶기다]</p> <p>(5ㄱ)과 (6ㄱ)과 달리 (5ㄴ)과 (6ㄴ)에서는 짧게 발음한다. 그러나 ‘꼴리다’와 ‘벌리다’, ‘엿애다’와 ‘웃기다’는 길게 발음한다.</p> <div data-bbox="794 1915 1500 212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작성 방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㉔과 ㉔의 이유에 대하여 각각 제시할 것.</li> <li>○ (2), (4), (5), (6)을 예로 하여 짧게 발음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할 것.</li> <li>○ ㉔의 조건에 대하여 밝힐 것.</li> </ul> </div>

2026학년도 임용 전공 국어문제	적중 근거 자료
<p>전공B-7번 [문법]</p> <p>7. 다음을 읽고, 부사격 조사에 대해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교사 : 부사격 조사는 ‘에, 에서, (으)로 보다’ 등이 있는데, 다른 격 조사에 비해 종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하나의 부사격 조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먼저 (1)의 부사격 조사 ‘에’를 살펴 봅시다.</p> <p>(1) ㄱ. 민수가 집에 있다.                  ㄴ. 지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ㄷ. 김밥이 한 줄에 천 원이다.</p> <p>학생 : (1ㄱ)의 ‘에’는 처소(處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교사 : 맞습니다. 그런데 (1ㄱ), (1ㄴ), (1ㄷ)의 ‘에’는 모두 의미가 다릅니다.                  학생 : 선생님, ‘에’와 ‘에서’는 어떤가요?                  교사 : (2)의 ‘에’와 ‘에서’는 처소를 나타내는 ‘마당’과 결합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p> <p>(2) ㄱ. 영호가 마당에 꽃을 심었다.                  ㄴ. 영호가 마당에서 꽃을 심었다.</p> <p>교사 : (2ㄱ)이 ‘에’는 ( ㉠ ) 곳을 나타내지만, (2ㄴ)이 ‘에’는 ( ㉡ ) 곳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작성 방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ㄴ)과 (1ㄷ)의 ‘에’가 나타내는 바를 각각 서술할 것.</li> <li>○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2어절로 쓸 것.</li> </ul> </div>	<p>■ 7, 8월 문제풀이, 형태론(2)</p> <p>90.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 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lt;보기 _____&gt;</p> <p style="text-align: center;">&gt;</p> <p>(1) 민지는 거지에게 밥을 먹였다.                  (2) 민지는 꽃에 물을 주었다.                  (3) 민지는 거지한테 밥을 먹였다.</p> </div>
<p>전공B-8번 [문학][고전시가][덕들에 동난지이~, 식어마님~]</p>	<p>■ 5~6월 심화 이론반2 교재 중                  -[송헌]작품을 보는 눈(고전시가) 374쪽, 377쪽                  &gt;덕들에 동난지이~, 식어마님~ 대상, 표현 방식</p> <p>■ 고전시가 임용 기출 강의 중                  &gt;2009학년도 &lt;식어마님~&gt;</p>
<p>전공B-9번 [문학][고전시가][기항지1]</p>	<p>■ 3~4월 심화 이론반1 강의 중                  -[송헌]작품을 보는 눈(현대시) 398쪽                  &gt;배경, 화자의 방향</p> <p>■ 현대시 임용 기출 강의 중                  &gt;2003년 &lt;기항지1&gt; 작품 해설</p> <p>■ ‘2026학년도 모의고사 2회 A-11번’,                  &gt;&lt;기항지1&gt;의 배경과 기항지의 의미</p>

2026학년도 임용 전공 국어문제	적중 근거 자료
전공B-10번 [문학][현대소설][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월 심회 이론반1 교재 중</li> <li>-[송헌]작품을 보는 눈(현대소설) 362쪽</li> <li>■ 현대소설 임용 기출 강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 &lt;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한다&gt; 작품 해설</li> </ul> </li> </ul>
전공B-11번 [문학][고전소설][화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 산문 임용 기출 강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학년도 &lt;적벽가&gt;(화용도 부분) 작품 해설</li> </ul> </li> </ul>



2026학년도 중등 국어 임용고시 희소티처스 설명회 포함

국어 송헌 김준팀

# 합 격 설 명 회

중등 국어 임용 합격비법을 공개합니다!



 KG 에듀원 교원임용 희소/쌤플러스